

대학생의 청소년기 학급친구 자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배 주 미 김 은 영†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를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주요 대학 인터넷 게시판의 공고를 보고 중고생 때 (학급)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후 1년이 경과한 대학생들이 자발적 참여의사로 지원하였으며, 그 중 전화면접을 통해 중고등학생 시기에 친한 친구나 혹은 같은 학급 친구의 자살경험을 한 대학생 11명을 인터뷰 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일대일 면담방식으로 진행하고 추출된 자료에 대해 현상학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급친구가 자살한 참여자들이 자살(소식) 접촉 당시와 이후에 관한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살(소식) 접촉 당시의 경험은 크게 '자살(소식)의 접촉', '자살(소식) 접촉시 참여자 반응', '자살소식 접촉시 관찰된 주변 반응' '관찰된 주변 반응에 대한 참여자 반응'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자살 발생 이후의 경험은 다시 '참여자의 반응'과 '관찰된 주변 반응', '관찰된 주변 반응에 대한 참여자 반응'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학교 당국의 관련 절차를 무관심하게 지각하고 경험하거나 혹은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청소년들과 주변사람들은 우울, 죄책감, 멍해짐, 신체화,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정서적 반응들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반응은 길게는 2년까지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학교 당국의 관련 절차를 무관심하게 지각하고 분노 혹은 좌절감을 경험하였으며, 혼란스러운 교사의 반응에 의해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학생 자살이 발생한 후 학교의 적절한 사후개입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학급 친구의 자살,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현상학적 분석

* 『본 연구는 2010년도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프로그램 개발 연구비에 의한 연구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은영,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흥진빌딩 8층 프로그램 개발팀, Tel: 02-2250-3071, E-mail: eun0@kyci.or.kr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의 자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살 문제가 크게 주목을 받아왔다. 국내 자살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자살 사망률(2008년 발표, 인구 십만명당 평균 11.0명)의 2배를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통계청 자료, 2008년 26.0명) 자살은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청소년의 자살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이전에는 청소년 사망원인 2위였던 자살이 2009년에는 1위로 올라섰고, 특히 15세~19세 사망률은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전년대비 40.7% 증가).

청소년의 자살은 또 다른 이유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맥락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의 자살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 존재한다(Brent et al., 1987; Range, 1993).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발달과 함께 또래들과의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에 필요한 사회기술들을 학습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한 개인으로서 부모로부터 분리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아직 인지적, 행동적 대처전략이나 정서적 자기조절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외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자살은 성인에 비해 사전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고, 내적 동기보다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김용분, 이정섭, 2003; 신민섭, 1993; 오승근, 2006; Bridge, Goldstein, & Brent, 2006).

Grossman과 동료들(1995) 그리고 Poland와 McCormick(1999)에 의하면 주변에서 자살을 직접 접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에 노출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Stack(2000; 2003)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 보도 후 모방자살이 14.3배 높아지며, 영화나 TV 드라마의 주인공보다는 실제인물이 자살했다는 사실기사가 더 영향력이 높고, 자세한 내

용을 수록하는 신문이 TV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자살보도를 다루는 언론매체의 수가 많을수록 파급효과가 커지며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후속 자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유명인의 자살 소식 보도나 자살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청소년들이 현실에서도 망가고자 하는 충동적 행동에 대한 무언의 지지가 될 수 있다. 2009년 4월에서 5월까지 두 달 동안 24명이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14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들 상당수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9). 2010년 8월에는 왕따를 당한 여고생 2명이 함께 투신자살 사건이 있는 후 보름여 만에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이 동반하여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조선일보, 2010).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모방심리로 인해 연속 자살이 이어질 수 있다(박상철, 조용범, 1988). 가족이나 친구가 자살하면 청소년이 자살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Bjarnason, & Thorlindsson, 1994; Blum et al., 1992; Buddelberg et al., 1996; Grossman et al., 1991; Harkavy et al., 1987; Kinkel, Bailey, & Josef, 1989; Rubenstein et al., 1989). 2007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주변인이 자살했다는 응답자 중 자살 시도 경험자가 28.6%로, 주위에 자살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9.4%)보다 자살 시도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주변인의 자살이 청소년들의 자살위험성을 높일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청소년들이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 문제 또한 학교 현장의 특성과 연관지어 고려해봐야 한다.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에서 다른 학생, 교사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루일과를 보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동년배인 다른 학생의 자살은 가까운 친지의 죽음과도 같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Pitcher, & Poland, 1992), 자살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Bjarnason, & Thorlindsson, 1994; Blum et al., 1992; Buddeberg et al., 1996;

Grossman et al., 1991; Harkavy-Friedman et al., 1987; Kinkel et al., 1989; Manson et al., 1989; Rubenstein et al., 198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교시스템 상 발생한 자살에 대해 숨기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이승연, 2007), 이는 자살 소식을 알리는 것이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오해(Poland, & McCormick, 1999)와 자살사망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생각(Leenaars, & Wenckstern, 1998)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자살은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혼란을 안겨주는 것으로 그 영향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으며(Parrish, & Tunkle, 2005), 학교 사회의 특성 상 자살 소식은 학생들 사이에 급속히 번지며 억측과 소문이 합쳐져 혼란되고 충격적인 분위기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Parrish, & Tunkle, 2005). 이와 같이 자살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구성원들이 받는 영향을 간과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구성원이 자살한 이후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수업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지각을 많이 하며 작은 일에 짜증이나 화를 내거나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더 많이 보이고, 이전에 존재하던 학업 문제들과 학업성취의 실패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zell, 1991; Jimerson, Brock, & Pletcher, 2005). 게다가 청소년 자살생존자들의 약물이나 비행, 자살시도와 같은 부정적인 대처방식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Pitcher, & Poland, 1992).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적 변화는 개인 내적인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에 기여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시스템 내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문제 또한 초래한다.

학교 장면에서 또래 학생이나 교사의 자살은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적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죽음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naars et al., 2001). 더 이상 문제해결방법이나 대처전략을 갖지 못하여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는 일

부 청소년들에게 자살은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충동적인 청소년일수록 자살 행동 후의 결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또래 학생이나 교사의 자살 사망 후 고인에게 주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에 매료되어 이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naars et al., 2001). 즉, 학교 장면에서 구성원의 자살 후 주어지는 부적절한 관심과 대처는 학교 구성원의 자살의 위험을 높이고, 특히 충동적인 일부 학생들에게 자살의 전염성을 높일 수 있다.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험을 인지하고 정당화하며, 학교 사회 내 의사소통 통로를 열어두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Parrish, & Tunkle, 2005).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자살의 영향과 학교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학생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살이 주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자살을 막기 위한 학교 현장의 개입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 학교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한 가능한 한 많은 인원에게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보다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부모, 교사, 정신건강전문가 등 관련된 인력과 자원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 사후개입의 가장 이상적 장소라고 할 수 있다(이승연, 2007; Mauk, & Weber, 1991). 미국, 호주 등 자살 예방에 성공적 경험을 축적한 많은 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자살 사후개입은 학교 기반 개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Deahl, 2000; Maine Children's Cabinet, 2004;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ew Hampshire, 2006). 그렇지만 자살에 대한 이해나 사후개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의도하지 않게 자살의 전염성이나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다(Callahan, 1996). 현재 자살 사후개입이 실제로 수행되는 외국의 경우에도 교사들이 자살의 위험요소나 단서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자살 발생 후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데 어려움을

보고하였다(Mulder, Methorst, & Diekstra, 1989; Hamrick et al., 2004; Scouller, & Smith, 2002).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자살과 관련된 행동특징을 판단하는데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담교사들도 일반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살위험 학생의 식별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연, 2007).

아직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해가 낮고 사후개입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현 시점에서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서구문화와 사회구조나 문화적 배경, 학교 풍토가 다른 외국에서 시행되는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후개입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자살과 주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학교사회의 맥락 안에서 고찰하는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사회과학분야의 자살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부기관의 통계를 기초로 한 자살의 실태 파악 연구, 자살 생각 관련 영향 요인이나 자살 원인을 탐구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에 치우쳐왔다(김형수, 2000; 박병금, 노필순, 2007; 배재남, 2001; 배지연, 2004; 엄태완, 2007; 은기수, 2005; 한승용, 2008).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양적 연구가 대부분으로 청소년의 자살이 발생한 후 주변 청소년들의 주관적 경험을 명확하게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주변인의 자살을 주제로 한 연구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나 적응의 문제를 일부 삽화로 소개하거나(김형수, 2002; 박지영, 2007), 자살자 가족들의 가족의 자살 후 생애경험을 다룬 연구(이근무, 김진숙, 2010)가 있으나 청소년의 자살이 주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는 전무하다. 따라서 청소년 또래 자살의 영향을 보다 실질적으로 심층적인 방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 사후개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선행 작업의 일환으로서 학교 현장에서의 또래 자살의 접촉 과정, 교사를 비롯한 학교의 반응과 주변의 대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 감정, 행동 반응 등

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적 통계적 분석 방법보다 현상학적 질적 접근이 더 유용하다. 현상학적 분석은 철학으로서의 현상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연구대상의 경험의 본질을 상황적 맥락 내에서의 연구대상의 경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체험을 알기 쉽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이다(Larkin et al., 2006). 주로 인터뷰, 참여관찰 등을 통해 얻은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연구자가 현상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맥락화하고 의미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Larkin et al., 2006; Maxwell, 2005).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방법 중 해석학적 방식의 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 IPA)을 채택하였다. 해석적 현상학적 분석방법은 다른 현상학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연구대상자의 경험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해석학적 접근에서 요구되는 심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들의 경험을 맥락화하고 의미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포함한다(Larkin et al., 2006). 해석적 현상학은 Husserl의 현상학 운동 이후 독일의 철학자 Heidegger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은 Husserl과 달리 존재(Being)의 의미에 관심을 둔 Heidegger는 "being with(함께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개념화하며 존재의 상호관계(interrelation)로서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이규호, 2005, p261~262, 재인용). 그러므로 해석적 현상학적 분석은 기존의 현상학적 접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 존재의 관계성과 맥락적 의미 부여에 초점을 둔 질적 연구방법이다(조민아, 2010; Larkin et al., 2006).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교 장면에서의 또래 자살 경험에 관한 심층적 자료와 주관적 경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기 학급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석적 방식의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또래 자살(소식) 접촉 당시와 자살 발생 이후의 개인 내적 경험 뿐 아니라 주변에 대한 관계적 경험을 생생하게 이끌

어내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들의 경험을 맥락화하고 의미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학급친구의 자살(소식)을 접할 당시에 경험한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학생들이 학급친구가 자살한 이후 경험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학급 친구가 자살한 상황에서 자신과 그들의 주변세계에 대한 경험, 개념, 지각, 이해 등에 내재해있는 의미와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자살이 주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나아가 이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 고등학교 때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살에 관한 심층면접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면접대상자가 경험을 언어화하여 표현할 수 있고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경험을 분리할 줄 아는 인지 능력이 필요하며, 본 심층면접이 참여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참여자 개인의 심리적 역량과 자원 활용 역량이 보장될 필요가 있었다. 외국의 기존 자살 사후개입에서 주변인의 자살로 인한 심각한 영향상태 기간을 1년으로 보는 것을 근거(Deahl, 2000; Maine Children's Cabinet, 2004;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ew Hampshire, 2006)로, 자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경과되어 자살로 인한 영향이 비교적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위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생들을 면접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장시간(자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이후의 회상을 통한 자료 수집의 한계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재 종교교에 재학 중이면서 친구가 자살한 지 시간의 경과가 얼마 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어서 면접대상자의 안전성과 대처가능역량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대학생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대상자들을 2010년 3월~4월 서울 소재 대학교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개 모집하였다. 1차 전화면접을 통하여 위에서 언급한 연구에 부합되는 조건임을 확인한 후 2차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2차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총 11명으로 만 19세~23세였으며 여성이 9명, 남성이 2명이었으며, 9명의 면접대상자들은 1년~3년 내에 학급친구의 자살을 경험하였으며, 2명의 면접대상자는 5년~7년 전에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료수집방법

면접 진행자들은 본 연구자들로서 임상심리전문가 박사 1명, 상담심리 전공 박사수료자 1명이었다. 두 면접자 모두 여러 차례의 질적 연구 경험을 갖고 있었고, 청소년 자살 관련 상담 및 연구를 수년째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면접을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을 사용하였는데, 면접 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위해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11명의 학생들과 연구자가 1 : 1로 면접하였고, 평균 7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고 기관 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면접 참가들에게는 시작 전 면담 내용이 녹음된다는 것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녹취록을 작성하지만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면담을 그만 둘 수 있고, 참여자들의 성함은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알렸다.

첫째,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면접을 진행할 때에는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편안하게 대화 형식의 면접은 하지만 정해진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자들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면접 지침을 만들었다. 논의와 합의를 통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질문 영역을 결정하고 참여자의 경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후속질문들을 도출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학급친구의 자살 직후 청소년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개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면접 지침에 따라 개인적 인적사항과 자살한 친구와의 관계 등이 도입 질문으로 포함되었고, 주된 질문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친구의 자살 발생 전 학교분위기, 친구의 자살 접촉 당시의 참여자의 경험과 주변의 다른 학생, 선생님, 학교 반응에 대한 관찰 경험, 친구의 자살 이후 자신의 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서의 인지, 정서,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마무리 질문으로는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었다. 또한 전체 면접 후 약 30분 동안, 인터뷰를 하고 난 후의 상태를 파악하고,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은지를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에 심리적 고통이 생기면 재상담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와 함께 인터뷰 1주일 후 전화를 걸어 면접대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초기 2개 면접의 축어록을 분석하여 질문방식과 응답범위에 대한 세부 면접 지침을 재차 협의하였다. 셋째, 연구진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연구자가 실시한 면접의 축어록을 비교 검토하여 면접 진행의 범위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면접자들은 중립성, 공통성, 자연스러움, 일상적 대화를 하는 분위기와 편안함, 진지함을 고려하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면담 중 주요내용이나 참여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면접 분위기 등은 면담 중에 질문지에 기록해두었고, 면담이 끝난 직후 다시 정리하였다. 녹음 내용은 누락없이 기록하였고,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이름이나 지명, 학교명 등은 삭제하고 사례번호를 붙이고, 기록의 비밀유지를 위해 작성한 파일에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였다. 면접내용 분량은 개인당 A4 17장~21장이었고 전체분량은 212쪽이었다.

분석절차

수집된 자료들을 해석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면접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를 전사하였다. 면접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느낌이나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면접자들이 1차적으로 2개의 면접 축어록을 읽고 주요 질문의 각 영역과 관련된 면접자료를 정리하여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하여 원자료를 축약하는 부호화(coding)를 하였고 부호화 영역 및 방법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이후 단계부터 5개월에 걸쳐 영역을 부호화하고 유의미한 주제를 탐색하는 작업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면접 축어록을 읽고 Nvivo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영역 부호화 작업을 하였다. Nvivo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이유는 면접 축어록에서 의미코드를 추출할 때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함으로써 신속하게 조합,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 각각의 면접 축어록에 대해 토의를 통해 영역 부호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약 2개월에 걸쳐 차이가 나는 코딩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였다. 예를 들어 '자살 접촉' 개념, 참여자의 관찰 대상 범위, '참여자의 관찰행동'과 '접촉행동' 등을 명료화하며 다양한 범주와 개념의 위치를 잡기 위해 코딩한 내용을 반복하여 검토하고 합의하여 수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약 4회 정도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된 코드북을 작성하였고 이 코드북에 근거하여 개별 면접자료를 다시 코딩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단계에서는 주당 1~2회 한달간 모임을 가지고 재정리한 자료를 모아 전체 자료를 약 34쪽 분량으로 축약하였고 이 자료를 해석의 기초 자료로 삼았다. 이때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하는 주제분석방법(Patton, 1990)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섭하여 설명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과 의미를 생성해냄으로써 청소년이 학교 친구의 자살(소식)을 접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적, 주관적 의미를 생생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생성된 구조와 도출된 개념들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최종적인 구조를 이끌어내었다.

결 과

친구의 자살(소식) 접촉 경험에 대한 분석은 시간적 배열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자살(소식)을 접촉 당시의 경험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반응’과 ‘주변의 학생, 교사, 학교의 반응에 대한 관찰 경험’, ‘관찰된 주변 반응에 대한 참여자의 반응’ 그리고 자살 접촉 이후 경험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반응’과 ‘관찰된 주변 반응’, ‘관찰된 주변반응에 대한 참여자의 반응’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 참여자의 반응은 정서, 인지, 행위적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자살(소식) 접촉 당시의 경험 분석

자살(소식) 접촉 당시의 경험은 자살(소식)의 접촉 경로, 자살(소식) 접촉 당시 참여자 반응, 자살소식 접촉시 관찰된 주변 반응과 관찰된 주변반응에 대한 참여자 반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살(소식)의 접촉 경로

면접 참여자들은 주로 주변 친구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전화를 통해 자살(소식)을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5사례). 반면 친구가 자살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거나(2사례), 부모들간 연락망이 활성화되어있던 학교에서는 부모가 다른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귀가하는 참여자에게 그 소식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1사례). 한편 학교로부터는 이미 학생들 사이에 자살이라는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 ‘자살이 아닌 다른 이유(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전달받은 사례들(3사례)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자살 사망’소식을 전달한 사례는 드물게 보고되었다(1사례). 이와 같은 결과들은 학생 자살이 발생했을 때 그 소식을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서 전달받기

전에 비공식적 체계를 통해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경로로 이미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자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자살이 아닌 다른 사고사로 전달 받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가 방학 직전에 복도에서 수다 떨고 있었는데 창문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옥상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연히도 제가 봐버렸고.. 다친 장면을 보는데 머리가 완전 하얘졌어요 사망한 모습이(a) ” - 추락장면을 목격

“저녁때 공부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문자로 왔어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k)” - 친구로부터 자살 소식을 접함

“선생님께서 처음에...그냥 오셔서 자살했다고(b)“-자살 사망에 대한 공식적 전달

“선생님이... 회피하는 느낌이있거든요...말은 그렇게 해요 친구가 우연히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는데, 신경쓰지 마라, 너희랑 관련 있는 일이 아니니까 딱 생각 하지 마라(j)” -교사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달

자살(소식) 접촉 당시의 참여자 반응

면접 참여자들은 자살(소식)을 접한 순간 대부분, 머리를 얻어맞은 듯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멍한 상태에 있었다고 했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사고가 난 것인데 혹은 그 친구가 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자살로 헛소문이 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등 믿기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다른 학급친구나 자살한 친구와 친했던 학생에게 찾아가 ‘정말 자살했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하였다. 또한 자살임을 알았을 때 너무 놀랐고 그 친구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계속 눈물을 흘리는 등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특히 자살을 목격한 경우 구토와 두통, 온몸이 쭈시고 힘이 없는 등의 신체적 반응을 많이 보고하였고 이러한 증상은 몇 개월간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자살이 발생하기 전에 자살한 친구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보고한 a, d, e, k의 경우 자살한 친구

에게 더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하고 자책하고, 사전에 자살한 친구로부터 자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j의 경우 자기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한 죄책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면접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정보 안에서 따돌림이나 이성 친구와의 이별, 시험성적의 하락 등 친구가 자살한 이유를 찾으려는 행동을 보였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해서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맴돌았다고 보고하였다.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f)”
-아무생각이 나지 않음
“도저히 너무 너무 뭐가 제 마음에 2%가 아니라 절반이 사라지는 느낌(j)”
-공허함

“처음엔 개가 밟고 배신감 느끼다가(j)”
-배신감을 느낌

“친구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그냥 제가 신경을 더 못 써준거 같아서...(h)”, “제가 밟고 아.. 진짜 친구를 제가 죽였다는 마음도 들었구요(j)”
-스스로를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낌

“구토하는... 계속 구토가 나오고...; 몸이 덜덜 떨려서(a)”
-신체반응

“노는 애들한테 약간씩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e)”
-자살한 이유를 찾음

자살(소식) 접촉 당시 관찰된 주변반응

면접 참여자들은 자살(소식)을 접할 당시에 대부분 학급 친구들 간에 술렁이다 바로 침울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교실에서 학생 모두가 자살하는 행동을 목격한 사례에서는 한동안 자살에 대한 이야기로 상당히 흥분된 분위기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살 소식 접촉 당일 장례식장에 간 경우 자살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너희만이라도 잘 살아달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하였다. 혹은 방학 중에 친구가 자살한 사례에서는 개학 후 친구의 사망소

식을 듣고 친구네 부모를 찾아뵈었다가 자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살한 친구가 사전에 따돌림을 당한 경우 가해자들이 주된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면접참여자들에게는 가해자들이 대부분 자살과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자살자를 ‘모자라다’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죽은 것이) 잘됐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측 반응으로는 장례식과 관련하여 친한 친구와 일부 교사들만 참석하게 한 경우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 드물게는 학급 전체가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아예 학생들 모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시험이나 보충수업 등 학사일정은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 나온 날 학교가 정말 조용했어요(a)”
-조용한 학급분위기

“제일 원인이 됐던 그 친구는 별로 죄책감같은 건 없더라고요, 다른 애들하고 시시덕거리고 놀고(h)”,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애들이 ‘잘됐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g)”
-지목된 가해자 반응

“친구들은 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학교 쪽에서 먼저 사고라고 알려도 되냐고 요청을 하셨다고(f)”
- 학교와 다른 정보를 제공한 자살자의 부모 반응

“엄마는 그에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힘들까봐 제가... 애가 나약하다고, 그만한 일로 죽으면 되냐고 부모만 불쌍하다면서...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라고”
-부모 반응

“단체로 한 번 갔는데 그 날 오후에 간 거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한번 가자고 해서...(e)” -단체로 장례식장에 감

“담임선생님이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애들이 그거에 화나가지고 어떤 애들은 무단으로 이탈해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장례식장에 학생들을 못 오게 함

표 1. 자살(소식) 접촉 당시의 경험 분석

범주	하위범주	개념	반응 사례
자살(소식)의 접촉 경로	직접 목격	추락 장면을 목격	1사례
		음독 장면을 목격	1사례
	친구에게 연락받음	친구의 문자메시지, 전화를 통해 자살소식을 접함	6사례
	부모로부터 전해들음	부모들간 전화연락망을 통해 자살 소식을 접함	1사례
	담임교사로부터 들음	자살로 사망했음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음	4사례
		자살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했다고 들음	3사례
참여자 반응	명함	명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음	9사례
	믿기지 않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	5사례
		그냥 뜬 소문이라고 생각	2사례
	자책	내가 신경을 못써줬나? 혹은 자신이 죽인 거나 다름없다	4사례
	놀람	놀람, 충격을 받음	4사례
	슬픔	흐르는 눈물과 울음을 그칠 수가 없음	3사례
	공허함	자신의 일부가 같이 사라진 느낌	2사례
	배신감	자신을 두고 떠난 친구가 밋고 배신감을 느낌	2사례
		여기저기 온몸이 쭈시고 두통을 느낌	2사례
		온 몸에 힘이 없음	2사례
	몸이 아픔	구토증세가 자꾸 일어남	2사례
		자살 여부를 확인하려 함	자살자의 친한 친구 혹은 학급 친구들에게 확인
		담임교사에게 확인	1사례
	자살의 이유 찾기	무엇 때문에 자살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	2사례
		자살 이유를 단정적으로 추정함(따돌림, 성적 압박, 이성 친구와의 이별, 부모와의 갈등 등)	9사례
자살소식 접촉 시 관찰된 주변 반응	학급 학생들의 반응	조용하고 침체된 분위기	5사례
		흥분된 분위기(학급 전원이 자살을 목격한 사례)	1사례
	자살자 부모의 반응	산 사람은 살아야한다, 너희라도 열심히 살아라	2사례
		학교측과는 다른 정보 전달(학교에서 사고사 처리를 부탁받음)	1사례
	지목된 가해자의 반응	자살자가 ‘모자라다’고 하거나, ‘죽어서’ 잘됐다’고 함	2사례
		자신은 자살과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임	4사례
	교사의 반응	실신하거나 우는 모습을 보임	1사례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피함	6사례
	학교의 반응	담임선생님이 별도의 추모시간을 마련함	1사례
		친한 친구, 담임교사, 간부교사만 장례식에 참석	5사례
단체로 장례식에 참석하게 함		1사례	
장례식에 못가게 함		2사례	
학사 일정(시험, 보충수업 등)을 그대로 진행		9사례	
	옥상 등 위험한 장소에 대해 폐쇄 조치를 함	1사례	
주변 반응에 대한 참여자 반응	교사 및 학교의 대처에 대한 불만	교사의 자살소식 전달 과정에 대한 불만	3사례
		장례식 절차 등 학교 대처에 대한 불만	3사례
		학교측에 대한 원망(따돌림 방치, 과열 경쟁 조장 등)	5사례
	지목된 가해자에 대한 강한 원망과 분노	방어적인 따돌림 가해자 반응에 대한 분노	3사례

자살(소식) 접촉 당시 관찰된 주변반응에 대한 참여자 반응

면접참여자들은 자살(소식) 접촉 당시를 떠올리며 학교 측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많았는데 학교 측의 자살 소식 전달 방식이나 장례식장 방문, 학사일정 운영체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학교가 따돌림을 방치하고 혹은 공부에 과열 경쟁을 조장해서 친구가 자살하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지목된 가해자에 대해 속죄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 커리큘럼은 개가 죽던 말던 상관없어요. 수업하고 야자할 거 다 하고 당일 날도 그랬고, 다음날도 전혀 달라진 것 없었어요(a)”

-자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처에 대한 불만

“정말 기가 막혀요.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반성은 커녕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정말 미친 거 아냐..하는 생각이(k)”

-지목된 가해자에 대한 분노

자살(소식) 접촉 이후의 경험 분석

자살(소식) 접촉 이후의 경험은 자살(소식) 접촉 이후 참여자 반응, 관찰된 주변 반응, 관찰된 주변반응에 대한 참여자 반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살(소식) 접촉 이후의 참여자 반응

면접 참여자들은 자살(소식) 접촉 이후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달, 길게는 수년간에 걸쳐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웠음을 보고하였다. 우울함이나 불안감이 지속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친구가 죽기 전에 자살 신호를 보낸 경우 그 상황을 자꾸 떠올리며 죄책감과 후회를 반복하였다.

여러 사례에서 학업 성적의 하락을 보고하였다. 좀처럼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학업성적이 떨어졌다고 하였으며, 반 전체가 성적이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시험 중에 순간적으로 멍해지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면접참여자들 중 많은 수가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고하였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죽음이 이렇게 가깝구나’, ‘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등과 같이 이전보다 죽음을 더 가깝게 느꼈다고 하였고, 평소로 돌아간 혹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주변 학생들이나 학교 분위기를 보면서 ‘사람이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내가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또 친구가 자살하기 전에 본인도 자살생각을 해보았던 참여자와 친구가 죽기 전에 자살 사인을 보았던 참여자는 ‘나도 죽을까?’, ‘칼로 긁고 싶다, 약을 먹을까’ 등 자살생각이나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또한 대인 관계가 위축되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몇몇 참여자들은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려는 욕구가 감소하거나, 친한 친구를 또 잃을까봐 겁이 난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그어놓고 대하게 된다는 등 또 다른 친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한편 자신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었는데, 자살 발생 이후에 우울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고한 경우 ‘선생님이 우리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너무 힘들어 보여 안쓰럽고 불쌍했다’고 하였다. 또한 자살한 친구의 미니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주고받았던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다시 읽어보거나, 친구와 찍었던 사진을 들여다보는 등 추억을 되새기거나, 자살한 친구네 가족을 방문하여 동생과 놀아주거나 부모의 안부를 살피는 등 돌보는 행동을 보고하였다. 이후 힘들어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행동을 보고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장기적인 반응 중 하나로서 자살한 친구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진로를 선택하여 대학을 진학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한동안 공부도 안하고 매일 밤 침대에서 울고 그 친구 사진 꺼내보고 그랬어요(b)”

-지속적 우울

“개가 죽어 가는데 방치한 거 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 애 힘들어하는데 내 할 일 하면서 방치한 것 같아

요(a)"

-죄책감

"이전에는 내가 죽으면 다들 엄청 슬퍼하거나 일상생활에도 못 잇고...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 하나 죽는다 해서 달라지는 건 없구나 라는 생각,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구나...생각(e)"
-죽음에 대한 생각의 변화

"칼 보면 몸 난자해버리고 싶고, 손목 그어 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약을 구해서 먹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a)"
-자살 생각의 출현

"그때 제가 찾았어요. **기관에서 상담받았구요(a)", "지금은 제가 나름 정신과 상담, 학교상담도 받고 있어요(b)"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음

"그 애 빼고 셋 다. 말이 없어졌어요. 밥 먹어도 몇 마디 안 해요. 우리 중에 제일 친했던 **는 얘기하고 싶어했는데 개 얘기하면 다들 입을 다물고... 학년 올라가고 나서 서로 그냥 떨어졌어요(f)", "내가 또 가까워지다가 애가 상처받는데 내가 무시하는 일이 생기면 자살로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이 오는 애들도 선 그어놓고 여기까지 대해주고 말았죠(j)", "3학년 올라가고 나서는 친구 안 사귀려고 했거든요. 저도 일부러 얘기 안하고 그랬으니까(c)"
-대인관계의 위축

"핸드폰 바꿨는데 그 전에 쓰던 거는 그거 못 지우고 친구 번호를, 문자 저장해 놓은 거 보기도 하고, 사진 찍었던 거 보기도 하고(f)", "한 달에 한번씩은 꼬박꼬박 만나서 셋이 안부 전화 드리고 두 번 정도는 동생들 놀아주러 갔었어요(h)"
-자살자를 추억하거나 그 가족을 돌봄

"그 이후로. 친구들한테. 뭐 힘든 거 있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표정이 어두우면 뭐 어려운 거 없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바뀌었어요(f)"
-다른 사람을 보살핌

"대학 와서 인권 쪽 활동하고 있거든요...그 때 저 혼자서 약속을 했어요. 무슨 일이든 그 친구 기억하면서 도움 줄 일 하겠다(b사례)"; "아마 개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과 선택한 이유가 개 때문인지도 모르겠구요(j)"
-진로 결정에 영향을 받음

자살(소식) 접촉 이후의 관찰된 주변 반응

면접 참여자들이 자살(소식) 접촉 이후 관찰한 주변 반응을 다시 자살자의 친한 친구의 반응, 학급 학생들의 반응, 교사의 반응, 지목된 가해자의 반응, 학교의 반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자살자의 친한 친구반응으로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었고, 말 수가 줄어들고 다른 사람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학급 학생들 반응으로는 겉보기에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로 돌아갔다고 하였고,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서 서로 싸운 일이 있었고, 학기 내내 어둡고 침체된 분위기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로부터는 '자살한 학생이 나약하고 철없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수업에 열의가 없고, 힘이 없는 모습을 보았거나, 휴직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혹은 의연한 모습을 보이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지목된 가해자의 경우, 별일 없다는 듯한 태도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 따돌림을 언급한 유서로 인해 학교에서 따돌린 학생들을 따로 불러 경찰에 넘긴 경우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자살자에 대해 화를 냈다고 하였다. 학교의 반응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더욱 신경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 여자에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어요(j)"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살자의 전 여자친구

"개네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의 말하는 거 못봤어요. 표정도 어둡고(e)"
-어두워보이고 대인 관계가 위축된 자살자의 친한 친구들

"애들이 막 싸웠어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보고 뭐라고 했죠. 남자애들은 뭐 활동적이니까 아무 생각없이 한 것 같은데 놀다보면 그 친구 책상 막 넘어지고 꽃도 엉망이 되고(c)"
-학급 학생들간 갈등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반 너무 어둡다고 표정 좀 피라고. 다른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시고. 그 이후로 1학기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2학기 때는 좀 나아졌고(g)”

-자살이 발생한 학기 내내 어둡고 침체된 학급 분위기

“그러니까 금요일 토, 일요일 지나고 다음 주 되니까 그냥 애들이 그대로예요. 웃고 떠들고 평소처럼 돌아갔어요. 겉보기에는요(f)” -평소와 다른없는 학급분위기로 돌아감

“엄마랑 싸우고 곧바로 자살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철없다, 나약하다. 그 얘기는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어요(d)”

-자살자를 비난하는 부모의 반응

“점점 우울증이 걸리시는 것 같았어요. 담임선생님이. 그 날 이후로 안색이 되게 어두워지시면서 농담같은 것도 전혀 없으시고 가르치시는데 열의가 되게 없어 보이셨어요(k)”, “선생님이 그 이후에 잠깐 휴직인지 휴가인지 잠깐 쉬셨던 거 같아요. 한달 정도(c)” -힘들어보였던 교사의 반응

“불러갔던 애들이 화내면서 들어오면서 ‘유서에 내 이름 있었대’하면서 얘기해서 알았어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좀 싫어해서...평소에도 싫었는데 드러내진 않았어요(e)”

-학교의 따돌림 가해자 처벌에 화를 내는 지목된 가해자 반응

“개네들은 전체 방송으로 부르더라고요. 애들은 다 그런 거겠다 싶고. 반 애들은 술렁거리고. 그때 애들이 대놓고 말했어요. ‘유서에 쓴 거 아냐?’ 이렇게,, 애들도 대충 느낌으로 알고 있었어요. 개네들은 경찰서까지 갔었던 거 같아요. 결국엔 학교 차원에서 처벌이 됐던 거 같고, 그 중에서 한 명은 억울하다 그랬고, 오히려 화내고 안그랬다 억울하다 그랬고.(e)”

-학교에서 자살자를 따돌린 학생을 불러 경찰에 넘김

자살(소식) 접촉 이후 관찰된 주변반응에 대한 참여자 반응

면접참여자들은 자살(소식) 접촉 이후 학급 및 학교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감을 보고하였는데, 평소와 다른없는 상태로 돌아간 학급 분위기에 이질감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보고하였고, 지목된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지거나 가해자들과 싸웠던 경험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학교의 자살자에 대한 처우나 지

목된 가해자의 미처벌에 대한 불만 등으로 불신감이 상승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정말 이전에 그 친구가 있었나 싶게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만 기분이 우울한 거 같고 애들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d)”

-학급 속에서 이질감과 외로움을 느낌

“그 애들과 크게 싸운 적 있어요..애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놀고 있길래,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너희 미친놈, 살인자. 개념없는 것들이 밥이나 먹고 있고..’(b)”

-지목된 가해자들과의 싸움

“아이들이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일까. 빨리 물어버리고 외부 소문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학교를 선택해 가는 요즘, 학교이미지를 업시키려고만 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있고나니까 학교체제를 신뢰하지 못하겠더라고요(a)”

-학교 체제에 대한 불신감 상승

논 의

본 연구는 학교장면에서의 친구의 자살(소식) 접촉에 따른 영향에 대해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를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교 게시판을 통해 중고등학생 때 친구의 자살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공개 모집하여 질적 면접을 실시하고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주변 청소년의 자살이 주는 영향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분석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자살(소식) 접촉 당시의 참여자 경험과 자살(소식) 접촉 이후의 참여자 경험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소식) 접촉 당시의 경험은 ‘자살(소식) 접촉 경로’, ‘자살(소식) 접촉 당시의 참여자 반응’, ‘자살(소식) 접촉 당시의 관찰된 주변 반응’, ‘자살(소식) 접촉 당시의 관찰된 주변반응에 대한 참여자 반응’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살(소식) 접촉 경로’ 과정의 경우 자살 상황을 목격한 경우를 제외하고 친구가 자살했을 때 주변 학생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전

표 2. 자살(소식) 접촉 이후의 경험 분석

범주	하위범주	개념	반응수
참여자의 반응	괴로운 감정 상태의 지속	지속적인 우울과 불안감	3사례
		죄책감과 후회	2사례
	죽음에 대한 생각의 변화	죽음이 가까이 있다,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생각	7사례
	자살 행동의 출현	자해 등에 관한 생각이나 충동이 일어남	2사례
	집중력의 저하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함	5사례
	학업 성적 부진	학업 성적이 떨어짐	3사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움	자살한 친구에 대해 말하지 않고 친구들과 멀어짐	3사례
		친한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4사례
		다른 사람에게 선을 그어놓고 대함	3사례
	담임교사의 심정에 대한 공감	자살 발생 후 힘들어하는 교사의 모습을 안쓰러워함	3사례
	자살자를 추억하고 그 가족을 돌봄	자살자의 미니홈페이지, 메일, 일기, 사진, 문자를 살핌	4사례
		자살한 친구의 부모를 찾아감	3사례
	다른 사람을 보살핌	힘들어 보이는 친구를 보살피는 행동을 하게 됨	3사례
	진로 결정에 영향을 받음	자살자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진로 결정	3사례
	상담과 치료를 받음	상담 혹은 정신과 치료를 받음	2사례
관찰된 주변 반응	자살자의 친한 친구 반응	정신과 치료를 받음	1사례
		말수가 적어지고 표정이 어둡고 다른 사람과 친해지지 않으려함	2사례
	학급 학생들의 반응	학생들간 자살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 갈등을 빚음	4사례
		자살이 발생한 학기 내내 어둡고 침체된 분위기 형성	2사례
	부모의 반응	겉보기에 평소와 다른 없는 분위기로 돌아감	4사례
		자살자가 철없다, 나약하다는 반응	1사례
	교사의 반응	수업에 대한 열의가 없고, 우울, 힘이 없음 (휴직 1사례)	5사례
		의연하려는 모습	2사례
	지목된 가해자의 반응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말과 행동	1사례
		별일 없다는 듯한 태도로 지냄	4사례
	학교의 반응	학교의 따돌림 가해자 처벌에 대해 화를 냄	1사례
		학생들의 학업에 더욱 신경쓰는 태도	2사례
자살자를 따돌린 학생을 불러 경찰에 넘김		1사례	
관찰된 주변반응에 대한 참여자 반응	학급 속에서 이질감과 외로움 느낌	자살자가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괜찮아진 학급분위기에 이질감과 외로움을 느낌	2사례
	지목된 가해자와의 갈등	지목된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짐 지목된 가해자와 싸움	2사례 1사례
	학교 체제에 대한 불신감 확대	자살에 대한 학교의 대응에 대해 전반적인 학교체제에 대한 불신감 확대	4사례

화, 채팅 등 다양한 연락망을 통해 친구나 부모로부터 자살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공식적으로는 자살 사망소식을 잘 전달 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자살이 아닌 다른 사고사로 전달받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자살(소식) 접촉 당시의 참여자 반응'을 살펴보면, 주변 친구의 자살 소식을 접했을 때 놀라고 멍한 반응,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 놀람과 슬픔, 공허함, 배신감 등의 상당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격자의 경우 구토, 두통, 몸의 떨림, 순간적 해리현상 등 다양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보고하였고, 이와 같은 증상들이 몇 개월간 지속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여주었다. 사전에 친구의 자살 신호를 접한 경우 '자신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식의 죄책감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경우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정보 안에서 친구가 자살한 이유를 찾았고, 따돌림과 같은 사전 촉발사건이 있는 경우 따돌림 가해자를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자살 접촉 이후의 경험은 '자살(소식) 접촉 이후 참여자 반응', '자살(소식) 접촉 이후 관찰된 주변 반응', '자살(소식)접촉 이후 관찰된 주변반응에 대한 참여자 반응'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살(소식) 접촉 이후 참여자 반응'을 보면 학생들은 우울이나 불안감이 지속되기도 하였고, 죄책감과 후회 역시 강하게 표현되기도 하였다. 죽음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죽음이 바로 주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깝게 느끼거나 사람의 죽음에 공허감이나 무가치감을 느끼는 등을 보여주어, 가까이 접해온 친구의 자살은 학생들의 사생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참여자들은 자살자와 사전에 주고받은 연락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추억하고 자살자의 가족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나아가 타인을 돌보는 방향으로 진로까지 고려하는 등 자살로 인해 대인관계 행동이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소식) 접촉 이후

관찰된 주변인 반응을 살펴보면, 자살자의 친한 친구 역시 대인관계의 위축, 우울한 경향, 말수가 줄어들, 정신과 치료 경험 등 참여자들의 반응과 유사하다. 한편 학급 학생들은 침체적 분위기로 지내는가 하면 평소와 같은 분위기로 쉽게 회복한 경우들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학생 자살이 발생했을 때 주변 청소년들이 받는 영향을 발견함에 있어서 접촉 순간과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현상학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물론 본 연구가 최근 자살이 발생한 학급 청소년들의 경험에 대한 생생한 현상을 보고하고 있지는 못하나, '학교 학급 학생의 자살 경험'이라는 중요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 10명이 넘는 참여자의 경험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의를 갖는다.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짐작해오던 '학생 자살 후의 주변 학생들의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추후 연구에서 학교장면에서의 자살 발생에 따른 영향의 과정에 대한 모형을 보다 명료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급내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보고에 의해 학교 내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현상, 친구 자살 경험 후 겪게 되는 현실적 경험들, 개인적 정서적 경험 현상, 학급 내 또래간의 갈등 및 애도과정을 겪으며 겪게 되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파악하게 됨으로써, 학교 및 사회가 이들 학생들이 혹여 겪게 될 불행한 위기상황인 학급학생의 자살에 대해 어떠한 사후개입 조치를 마련해야할 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게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그 중 첫 번째 현상으로, 최근 1~2년 전까지 학생 자살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교사가 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는 있었을지 모르나, 자살 발생 후 학생들에 대한 위기관리 지침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학교장 혹은 교사 임의에 따라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학급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처음에는 사고사인 것

으로 전달받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등 혼란이 나타났다. 자살 소식 접착당시 관찰된 주변 반응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자살 소식을 전달하다가 실신한 경우가 있었고,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모습으로 관찰되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자살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것을 자살한 친구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았다. 학생들은 지목된 가해자가 있을 경우, 가해자 반응을 주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해자가 겉으로 애도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분노와 적개심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비공식적인 연락망과 공식적 전달체계 간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많은 비공식적 연락이 더욱 활성화되고 공식적 전달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Parrich, & Tunkle, 2005).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을 우려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서구문화권 뿐 아니라 같은 아시아의 홍콩, 일본 등에서도 사후개입을 할 때 모두 자살 소식의 사실적 전달을 강조하고 있다(Deahl, 2000). 따라서 자살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공식적 전달체계를 통해 자살이 사실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공식적 자살소식 전달체계 뿐 아니라 장례식 절차, 학급 학생들에 대한 개입에 대한 공식적 절차가 없는 과정에서 학교장 및 교사임의에 의해 절차들이 처리되고, 이러한 임의적 절차가 이후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은 자살 소식 접착 당시의 학교 반응은 장례식 문제나 학사일정의 유지, 옥상 폐쇄 등 학교 안전 관리에 관한 것들이었다. 학생들을 무조건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경우 일부 학생들이 학교를 무단 이탈하여 장례식에 가는 행동을 보여 학생들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위에서 언급한 공식적, 체계적 전달체계뿐 아니라 장례식문제(장례식 참석범위, 학교내 추모행사 금지 등), 학사일정의 유지, 안전관리 체계 가동과 같은 위기개입 절차의 구축은 만약에 생길 학교내 학생자살에 대해 학교장 이하 교사들의 일관된 행동원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혼란과 위협을 막고 학교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현상으로 학급친구의 자살과 관련된 반응 중 하나는 자살에 대한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이었으며, 많은 경우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정보 안에서 친구가 자살한 이유를 찾으려 하였으며, 만약 따돌림과 같은 사전 촉발사건이 있는 경우 따돌림 가해자를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 이 같은 행태는 선행연구(Mainé Children's Cabinet, 2004)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살자 유가족들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고 그 이유를 찾는 행위와 유사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은 학생들이 모호한 정보 속에서 친구가 자살한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자칫 자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고, 자살자나 혹은 자살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낙인하는 자살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의 영향으로 혼란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자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설부른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시킬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현상으로 학교내 학생의 자살은 학급친구 및 친한 친구들에게 놀람, 죄책감, 명함, 배신감 및 우울 등에 이르는 다양한 심리적 영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집중력의 저하, 대인관계의 위축과 같은 자살자 주변인의 전형적 증상과 학업 성적 부진과 같은 청소년기 특유의 부정적 영향 반응이 나타났고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몇몇의 경우에는 그들의 자살행동이나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년배인 학생의 죽음이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가까운 친구의 자살은 마치 친지를 잃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준다(Blum et al., 1994; Bjarnason et al., 1994; Pitcher, & Poland, 1992)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 Traumatic Stress Syndrome)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경험하는 상태이며, 재난 후 6일에서 6개월 이내 서서히 사라져 일상성을 회복한다(최남희, 2006). 본 연구의 학생들은 우울이나 불안감이 지속되기도

하였고, 죄책감과 후회 역시 강하게 표현되기도 하였다. 죽음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죽음이 바로 주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깝게 느끼거나 사람의 죽음에 공허감이나 무가치감을 느끼는 등을 보여주어, 가까이 접해온 친구의 자살은 학생들의 사생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1사례 중 2사례에서 자해 등 자살 행동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전체 청소년의 자살사망률(십만명당 6.5%, 2009년 통계청)에 비추어 볼 때 주의깊게 살펴보아야할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자살사후 개입에 있어서 스크리닝(screening)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개입과정 내 전문가의 간략한 스크리닝을 통해 학급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거나 조기개입하고 혹은 발생될 모방 자살을 예방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청소년이 얼마나 자살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려주며, 적극적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고 하겠다.

다섯 번째 현상의 경우, 학급 내 친한 친구들의 경우 우울, 침체, 명함 등의 심각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한편, 일반적인 학급 학생들은 침체적 분위기로 지내는가 하면 평소와 같은 분위기로 쉽게 회복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이전 학생들과 자살자와의 관계가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자살자와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학생들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Mainé Children's Cabinet, 2004). 이와 같은 학급 학생들과 자살자간 친밀감의 수준은 다양하며 그에 따라 자살(소식) 접촉 반응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러한 자살 발생 후 학급 학생들의 서로 다른 반응은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질감이나 공허함을 경험하게 하고 어떤 학생들 간에는 불만과 분노를 조장하여 학급 학생들간 갈등이 깊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애도반응에 대한 개인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 주는 사소한 절차는 이후에 야기될 수 있는 학생들의 갈등을 경감시키고 이로 인한 이차적 정신적, 현실적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

차일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여섯 번째 현상으로 이러한 학급친구의 자살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는 승화된 결과를 나타낸 학생들도 있었다. 즉 참여자들은 자살자와 사전에 주고받은 연락자료를 다시 살펴 보면서 추억하고 자살자의 가족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나아가 타인을 돌보는 방향으로 진로까지 고려하는 등 자살로 인해 대인관계 행동이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살 등 위기나 외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 변화 즉 외상 후 성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외상 후 성장이 나타나는 것은 자살이라는 스트레스원의 객관적 위험성이나 중요도보다 개인의 자아탄력성, 문제해결력과 같은 개인적 변인, 사회적 지지, 대처과정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이양자, 정남운, 2008; Tedeschi, & Calhoun, 2004). 따라서 참여자들의 애도 반응을 촉진시키고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들이 친구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더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했던 중고생 때 학급 친구가 자살한 경험을 지닌 대학생 11명의 결과로 일반화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대학생의 회고적 경험을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중고생의 경험과 다를 수 있다. 또한 자살한 친구와 사전에 얼마나 가까웠는가에 따라 자살에 따른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주변 청소년의 자살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다양한 입장의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지역별로 청소년 자살 발생률이 다르며, 남녀간 자살 사망률의 차이도 크다. 주변 친구의 자살은 외상적 경험일 수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유병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의미있게 높다. 따라서

친구의 자살에 대한 경험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는 연령별, 성별 및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친구의 자살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들의 축적은 성별, 지역별 등의 집단 특성별로 더 적합한 사후개입을 제공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분, 이정섭 (2003). 자살 개념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2(4), 394-401.
- 김형수 (2000). 노인자살의 이해와 일차적 예방. **한국인구학**, 23(2), 167-187.
- 김형수 (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52-172.
- 박병금, 노필순 (2007). 우울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변인: 우울청소년과 비우울청소년의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168-193.
- 박상철, 조용범 (1988). **자살, 예방할 수 있다**. 서울: 학지사.
- 박지영 (2007). 노인자살 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 295-330.
- 배지연 (2004). 노인자살에 대한 사례분석: 신문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3, 65-82.
- 배재남 (2001). 한국노인의 자살고찰. **노인정신의학**, 5(2), 113-119.
- 신경림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민섭 (1993).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도피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양자, 정남운 (2008).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3(1), 1-23.
- 일본 아동, 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한 대처관련 검토회 (2007). **아동자살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엄태완 (2007). 노인자살관련요인: 무망감과 우울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통제감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2), 355-379.
- 오승근 (2006). **청소년의 자살태도, 자살위험성 및 생명존중교육 참여 요구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은기수 (2005).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회**, 28(2), 97-129.
- 이근무, 김진숙 (2010).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09-134.
- 이승연 (2007). 학교장면에서의 자살 사후중재. **상담학연구**, 8(1), 161-180.
- 조선일보 (2009. 6. 4). 자살, 예방할 수 있는 '고독의 병'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03/2009060301943.html
- 조선일보 (2010. 8. 30). 부산서 여고생 2명 동반 투신 자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30/2010083001116.html
- 지승희, 구본용, 배주미, 정익중, 이승연, 김은영, 김태성, 박재연, 허진석 (2007). **청소년자살예방체제구축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통계청 (2010). 2009 사망원인 통계 결과. 서울: 통계청.
- 한국자살예방협회 (2005). **한국자살예방협회 2005년도 학술 심포지움**.
- 한승용 (2008). 사회적 통합과 자살: 연휴가 자살자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회**, 31(1), 169-198.
- Bjarnason, T., & Thorlindsson, T. (1994). Manifest predictors of past suicide attempts in a population of Icelandic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4, 350-358.
- Blum, R. W., Harmon, R., Harris, L., Resnick, M. D., & Bergeisen, L. (1992). American Indian /Alaskan Native youth health. *Journal of the*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7, 1637 - 1644.
- Brent, D., Bromet, E. J., Dew, M. A., & Greenhouse, J. B. (1987). A quantitative literature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suicide prevention cent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2), 239-244.
- Bridge, J. A., Goldstein, T. R., & Brent, D. A. (2006).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3-4), 372-394.
- Buddelberg, C., Buddeberg, F. B., Gnam, G., Schmid, J., & Christen, S. (1996). Suicidal in Swiss students: An 18-month follow-up survey. *Crisis*, 17, 78-86.
- Callahan, J. (1996). Negative effects of a school suicide postvention program: A case example. *Crisis*, 17, 108-115.
- Center for Suicide Research & Prevention i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2003). *Suicide Prevention in Schools*. http://csr.p.hku.hk/files/163_895_224.pdf
- Deahl, M. (2000). Psychological debriefing: Controversy and challeng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4, 929-939.
- Grossman, D. C., & Milligan, B. C., & Deyo, R. A. (1991).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among Navajo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1, 870-874.
- Grossman, J., Hirsch, J., Goldenberg, Dorothea., Libby, S., Fendrich, M., Mackesy-Amiti, M. E., Mazur, C. & Chance, G. H.(1995). Strategies for school-based response to loss: Proactive training and postvention consultation. *Crisis*, 16(1), 18-26.
- Hamrick, J. A., Goldman, R. L., Sapp, G. L., & Kohlet, M. P. (2004). Educator effectiveness in identifying symptoms of adolescents at risk for suicide.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31, 246-252.
- Harkavy, F. J., Asnis, G. M., Boeck, M., & DiFiore, J. (1987). Prevalence of specific suicidal behaviors in a high school sampl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1, 870-874.
- Hazell, P. (1991). Postvention after teenage suicide: An Australian experience. *Journal of Adolescence*, 14, 335-342.
- Jimerson, S. R., Brock, S. E., & Pletcher S. W. (2005). An integrated model of school crisis preparedness and interventio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6, 275-296.
- Kinkel, R. J., Bailey, C. W., & J J f, N. C., (1989). Correlates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s: Alienation,9)ugs and social background.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34(3), 85-96.
- Larkin, M., Watts, S., & Clifton, E. (2006). Giving voice and making sense i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101-120.
- Leenaars, A. A., & Wenckstern, S. (1998). Principles of postvention: Applications to suicide and trauma in schools. *Death Studies*, 22, 357-391.
- Leenaars, A. A., Wenckstern, S., Appleby, M., Fiske, H. Grad, O., Kalafat, J., et al. (2001). Current issues in dealing with suicide prevention in schools: Perspectives from some countries.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12, 365-384.
- Maine Children's Cabinet (2004). *Preventing youth suicide through gatekeeper training: A resource book for gatekeepers*.
- Manson, S. M., Beals, J., Dick, R. W., & Duclos,

- C. (1989). Risk factors for suicide among Indian adolescents at a boarding school. *Public Health Report*, 104, 609-614.
- Mauk, G. W., & Weber, C. (1991). Peer survivors of adolescent suicide: Perspectives on grieving and postven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 113-131.
- Maxwell, J. A. (2005). *Qualitative research design(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ulder, A. M., Methorst, G. J., & Diekstra, R. F. W. (1989). Prevention of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ts: The role and training of teachers. *Crisis*, 10, 36-51.
-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ew Hampshire. (2006). *Frameworks Youth Suicide Prevention Project: Postvention*.
- Parrish, M., & Tunkle, J. (2005). Clinical challenges following an adolescent's death by suicide: Bereavement issues faced by family, friends schools and clinicians.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3, 81-102.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Pitcher, G. D. & Poland, S. (1992). *Crisis intervention in the schools*. New York: Guilford.
- Poland, S., & McCormick, J. S. (1999). *Coping with crisis: Lessons learned*. Long Mont, CO: Sopris West.
- Range, L. M. (1993). Suicide prevention: Guidelines for school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5(2), 135-154.
- Rubenstein, J. L., Heereen, T., Housman, D., & Stechler, G. (1989). Suicidal behavior in normal adolescent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1), 59-71.
- Scouller, K. M., & Smith, D. I. (2002). Prevention of youth suicide: how well informed are the potential gatekeepers of adolescents in distres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32, 67-79.
- Stack, S. (2000). Media impacts on suicide: A quantitative review of 293 findings. *Social Science Quarterly*, 81, 957-971.
- Stack, S. (2003). Suicide influences and factors: Media effects. In R. Kastenbaum (Ed.) *Encyclopedia of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USA.
- Tedeschi, R. G., & Calhoun, L. G.(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y Inquiry*. 15(1), 1-18.

원 고 접 수 일 : 2011. 0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11. 10. 26.

계 재 결 정 일 : 2011. 11. 08.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Adolescents for Friend's Suicidal Completion.

Joo Mi Bae

Eun Young Kim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We examined the impacts of friends' suicide in their middle or high school years in this study. We interviewed the college students with the semi-structured question and analyzed the interview data using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We had focused on their responses and aftermath effect of the friends' suicide when the interviewees came to know the suicide. We found that the interviewees showed the emotional responses such as depression, guilty, anger, somatization, denial and avoidance and the responses aforementioned had lasted for up to 2 years. It was shown that the interviewees had gone through anger and frustration and felt disturbed when the schools and the teachers did not take appropriate procedures. We suggested that the schools and the teachers need to intervene the process.

Key words : adolescent, classmate's suicidal death, suicidal postvention,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